

POLICY
iSSUE
REPORT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연구진

박현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유럽의회 사례	
	1. 유럽의회 개요	7
	2. 유럽의회 분산	18
III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영향	
	1.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기능 및 장점	26
	2.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문제점	29
IV	결론 및 시사점	
	1. 국회세종지사당 분원에 따른 장점 및 시사점	32
	2. 분원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37
	참고문헌	40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
 -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함
 -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표 1-1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세종의사당) •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의사당 분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업무효율 제고, 행정 비용 감소 등의 목적을 지님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설치 규모와 운영 방안을 담은 국회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국회 세종 의사당 분원 설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국회의사당이 분원된 사례는 없으므로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해 복수 국회의사당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분산해놓은 유럽의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벨기에 브뤼셀, 룩셈부르크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며, 브뤼셀에서는 임시회, 상임위, 기타 회의, 교섭단체 활동이 이뤄지며, 룩셈부르크에서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 유럽의회 기능이 분산된 역사, 각 분원이 맡는 역할 및 기능, 분원에 따른 장점과 단점, 분원에 따른 갈등, 통합 논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분원 운영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유럽의회 분산된 의회 기능 및 분산 이유
 - 유럽의회 주요 기능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 과정
 - 각 유럽의회 분원의 역할 및 기능
 - 각 유럽의회 직원 및 청사 현황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기능 및 문제점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기능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문제점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에 따른 갈등
- 유럽의회 사례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분원에 주는 시사점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유럽의회의 역사, 분산 과정, 분산의 장단점, 분산으로 인한 갈등 검토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면담
 - 복수 국회의사당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본회의와 상임의 분산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 면담 및 자문 실시

II

유럽의회 사례

1. 유럽의회 개요

개요 및 주요 기능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함께 유럽연합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 중 하나로,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선 의원들로 구성된 초국가적 의회임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으로서 27개국 회원국, 4억 4,700만 명을 대표함
- EU 각 회원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며, 의석은 인구수에 비례함
- 유럽연합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 및 예산 결정의 권한 행사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인사권, 위원장 선임 거부권, 총사직 청구권 등을 보유
- 입법권
 -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 (co-decision)을 보유함(외교부, 2021)
- 감독 통제권
 -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단 임명에 대해 승인 및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외교부, 2021)

- 유럽연합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서면 및 구두로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외교부, 20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활동 계획, 예산안 집행기록, 활동 결과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해야 함(외교부, 2021)
 -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조사 및 감독할 수 있음
- 예산권
 - 예산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외교부, 2021)
 - 유럽연합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유럽议회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

유럽의회 조직 구성

- 유럽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단 14인, 재무담당관(Quaestors) 5인으로 집행부(Bureau)를 구성함
- 유럽의회 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은 유럽议회의 의사와 활동을 총괄함
 - 유럽议회의 회의(본회의 포함) 의사 진행, 의회 규칙 감독, 의회와 의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감독함
 - 유럽의회 의장은 대외 관계 및 국제 관계에서 유럽의회를 대표함
 - 임기는 2년 6개월이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함
 - 의장은 본부인 스트라스부르와 사무국이 위치한 브뤼셀 양 쪽 모두에 의장실을 두고 있음
 - 유럽의회 의장 밑에 14명의 부의장이 있음
 - 현재 유럽의회 의장은 2019년 7월 3일에 취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David-Maria Sassoli임

- 의장과 부의장단 모두 의원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의장, 부의장, 재무담당관(quaestors)의 순으로 선출됨
- 의장 및 부의장단 입후보를 위해서는 1개 정치그룹 또는 최소 의원 38인(전체 의원 수의 1/20)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최종 당선을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만약 3차 투표까지 시행한 후에도 절대다수 지지를 확보한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3차 투표의 최다득표 1, 2순위 후보자 2인에 한해 4차 투표가 시행됨
- 4차 투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의장으로 선출됨
- 부의장 선출은 후보자가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최다 득표자 14인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방식임
- 1차 투표 후에도 부의장 14인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1차와 같은 방식으로 2차 투표를 하게 되며, 만약 2차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미달하여 3차 투표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1, 2차와는 달리 상대다수 지지 획득방식으로 후보자 가운데 부의장 당선자를 선출하게 됨
- 동점자 발생 시 의장 선출 때와 동일하게 연장자순으로 선출함
- 후보자가 부의장 수인 14인에 미달할 때는 구두투표로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때 후보자들의 우선순위는 비밀투표로 정함
- 재무담당관은 부의장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며, 총 5인을 선출함
- 재무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의회의 행정 및 재정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임
- 집행부와 각 정치그룹(일종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구성된 의장회의(Conference of Presidents)는 입법에 대한 계획 및 위원회와 의원친선대표단(delegation) 구성, 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을 지니며, 유럽연합 내 다른 기구와 회원국 의회, 그리고 비유럽연합 국가와의 관계 구축 등을 담당

- 상임위원회(committees)
 - 외교, 경제, 농업, 개발, 재정 등 총 20개 상임위원회와 3개 소위원회가 있으며, 필요 시 임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그 외 유럽연합 비회원국 및 타 지역 국가 의회와의 교류 등을 위한 44개 의원 친선 대표단(delegation)을 두고 있음

• 표 2-1 | 역대 유럽의회 의장 •

이름	재임 기간	출신 국가
David Maria Sassoli	2019~	이탈리아
Antonio Tajani	2017~2019	이탈리아
Martin Schulz	2012~2017	독일
Jerzy Buzek	2009~2012	폴란드
Hans-Gert Pöttering	2007~2009	독일
Josep Borrell Fontelles	2004~2007	스페인
Pat Cox	2002~2004	아일랜드
Nicole Fontaine	1999~2002	프랑스
José Maria Gil-Robles	1997~1999	스페인
Klaus Hänsch	1994~1997	독일
Egon A. Klepsch	1992~1994	독일
Enrique Barón Crespo	1989~1992	스페인
Lord Plumb	1987~1989	영국
Pierre Pflimlin	1984~1987	프랑스
Piet Dankert	1982~1984	네덜란드
Simone Veil	1979~1982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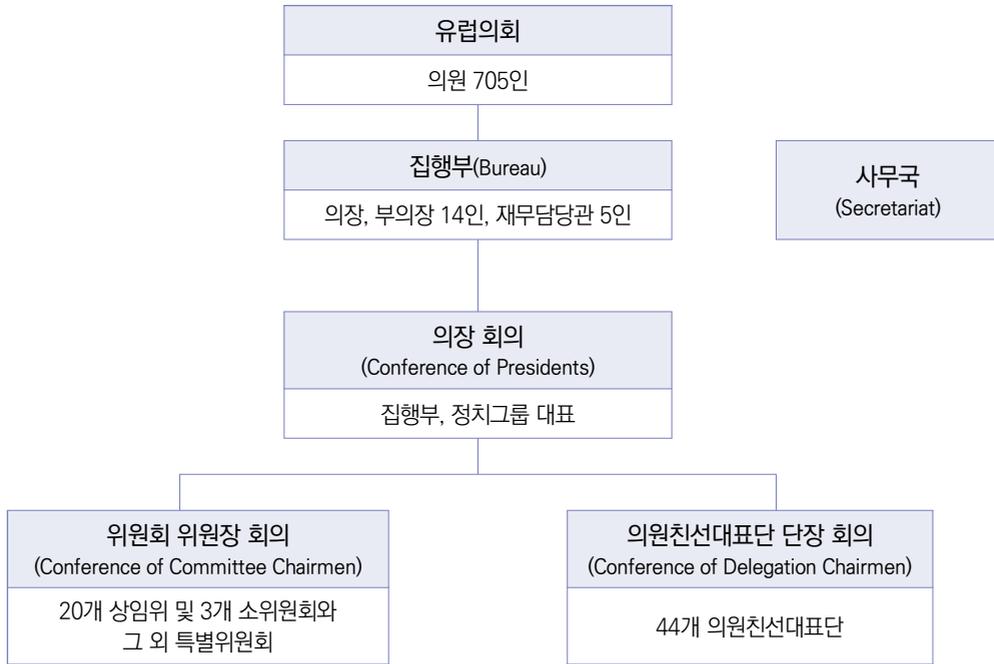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21. Retrieved from https://www.europarl.europa.eu/infographic/european-parliament-timeline/index_en.html#event-20200131

• 표 2-2 | 제9대 유럽의회 의장단 •

구분	의원	국가	정치그룹(원내교섭단체)	
의장	David-Maria SASSOLI	이탈리아	사회민주당보동맹(S&D)	
	Mairead McGuinness	아일랜드	유럽국민당(EPP)	
	Pedro SILVA PEREIRA	포르투갈	사회민주당보동맹(S&D)	
	Rainer WIELAND	독일	유럽국민당(EPP)	
	Katarina BARLEY	독일	사회민주당보동맹(S&D)	
	Othmar KARAS	오스트리아	유럽국민당(EPP)	
	Ewa Bożena KOPACZ	폴란드	유럽국민당(EPP)	
	부의장 (최다득표순)	Klara DOBREV	헝가리	사회민주당보동맹(S&D)
		Dita CHARANZOVA	체코	리뉴 유럽(RE)
		Nicola BEER	독일	리뉴 유럽(RE)
		Livia JÁRÓKA	헝가리	유럽국민당(EPP)
		Heidi HAUTALA	핀란드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Marcel KOLAJA	체코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Dimitrios PAPANIKOLAOU	그리스	유럽통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연합(GUE/NGL)		
Fabio Massimo CASTALDO	이탈리아	무소속(Non-Inscrit)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21. Retrieved from https://www.europarl.europa.eu/infographic/european-parliament-timeline/index_en.html#event-20200131

• 그림 2-1 | 유럽의회 조직 구성 •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21. <https://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organisation-and-rules/organisation/political-bodies>

유럽의회 직원 구성

- 총 7,8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스트라스부르 : 293명
 - 브뤼셀 : 5,039명
 - 룩셈부르크 : 2,188명
 - 그 외 : 300명

• 표 2-2 | 유럽의회 직원 수 •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	그 외	합계
직원 수	293	5,039	2,188	300	7,820

- 전체 직원 중 남성이 44.5%, 여성이 55.5%로 구성됨
- 전체 직원 중 약 8.5%가 원내 교섭단체 소속임
- 직원 중 벨기에 국적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순으로 많음
- 유럽의회 의원들은 의회 예산으로 자신의 보좌관을 고용함
 - 3~4명의 보좌관(accredited assistant)은 3곳의 의회 소재지에 근무함
 - 지역 보좌관(local assistant)은 의원들의 국가에 근무함
- 청사 관리, IT, 청소, 구내식당과 같은 서비스는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음
- 의회 기간 중에는 기자, 방문객, 로비스트로 인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의회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스트라스부르그 상주 직원의 대부분은 의회 건물 관리와 경비 등을 위한 인력임
- 그 외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에서 근무하는 의회 직원들은 매월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를 포함, 각종 회의 참석 및 업무를 위해 스트라스부르와 룩셈부르크, 브뤼셀 3개 지역을 수시로 이동
 - 매달 1회 본회의 개최 시 월요일 오전 스트라스부르로 이동, 목요일 회기 종료 시까지 업무 수행 후 원 근무지(브뤼셀 또는 룩셈부르크)로 복귀하는 패턴
 -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회 직원 역시 공무출장 시 여비 지원을 받으며, 이는 유럽 의회 운영규칙에 명시된 출장지별 숙박비 상한 및 일비 기준에 따라 지급됨

유럽의회 청사

- 유럽의회는 총 27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브뤼셀이 건물의 수와 면적 모두 최대

- 스트라스부르 : 5개(344,283㎡)
- 브뤼셀 : 17개(659,565㎡)
- 룩셈부르크 : 5개(176,283㎡)
- 3곳의 의회 소재지 외 국가에도 유럽의회 연락소 건물이 있음
- 유럽의회는 점점 건물을 렌트하기보다 구매하는 추세임
 -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낫자고 보고 있음
 - 의회 소재지뿐 아니라, 유럽의회 연락소 건물 역시 구매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음
 - 유럽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건물을 구매하는 것이 렌트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50%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현재, 유럽의회는 87.5%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1,052,400㎡)

• 표 2-3 | 유럽의회 건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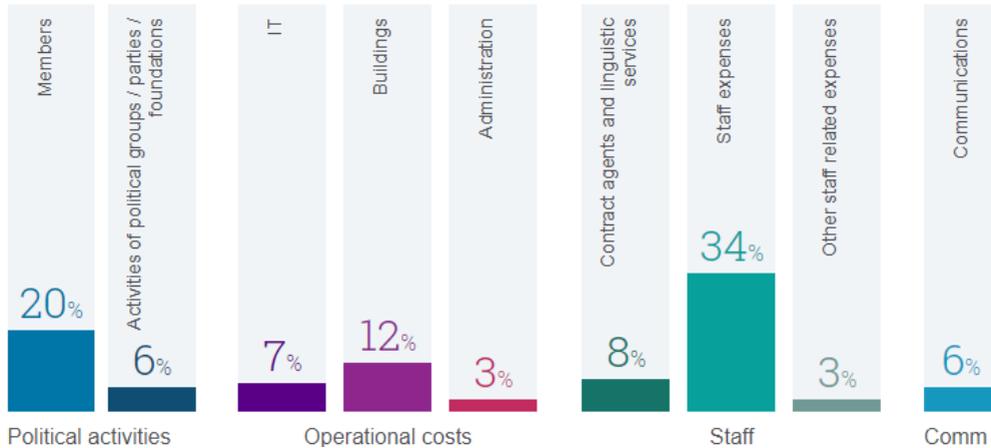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	합계
빌딩 수	5	17	5	27
면적(㎡)	344,283	659,565	176,283	1,180,131

출처 : European Parliament(2021)

유럽의회 예산

- 유럽의회 예산은 약 20억 유로(2조 6,704억 원)임
 - EU 기관의 총 행정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 EU의 전체 예산의 1.2%임

• 그림 2-3 | 2021년 유럽의회 예산 •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21. <https://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organisation-and-rules/parliaments-budget>

유럽의회 사용 언어

- 유럽의회에서는 24개의 EU국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
- 회원국 국민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 이로 인해, 유럽의회 직원 중 약 1,500명이 번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유럽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 시, 24개의 언어로 동시에 통역이 됨
- 유럽의회에서 사용되는 24개의 언어는 다음과 같음
 - 불가리아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독일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아일랜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의원 선출

- 의원 수 : 705명
- 의원 임기 : 5년
- 현 의원 임기 : 2019년 7월~2024년 6월
- 의원 선출 및 의석 배분
 - 1979년 이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며, 선거방식은 회원국별로 다름
 - 각 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지정, 리스본 조약 기준 인구 비례 등을 토대로 국가별 의석수 할당
 - 2014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는 751명의 의원이 있었음
 -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2020년 2월 1일부터 705명으로 줄게 되었음
 -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을 수정하는 리스본 조약에 의거, 의원 정수가 751명이었으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2020년 2월 의석수 할당을 재검토하였음
 - 이에 따라 영국에 할당되어 있던 73석 중 27개석은 EU 회원국 간 재분배하고, 46석은 신규 회원가입국 몫으로 확보하는데 합의하는 등 영국 탈퇴 후 총 의석수는 기존 751석에서 705석으로 삭감됨

• 표 2-4 | 유럽의회 국가별 의석 수(2021년 10월 기준) •

(단위 : 석)

구분	국가별 의석수
90석 이상	독일(96)
70석 이상	프랑스(79), 이탈리아(76)
40석 이상	스페인(59), 폴란드(52)
30석 이상	루마니아(33)
20석 이상	네덜란드(29), 벨기에(21), 체코(21), 그리스(21), 헝가리(21), 포르투갈(21), 스웨덴(21)

구분	국가별 의석수
10석 이상	오스트리아(19), 불가리아(17), 핀란드(14), 슬로바키아(14), 덴마크(14), 아일랜드(13), 크로아티아(12), 리투아니아(11)
10석 미만	라트비아(8), 슬로베니아(8), 에스토니아(7), 키프러스(6), 룩셈부르크(6), 말타(6)
계	705석

출처 : European Parliament(2021)

유럽의회 위원회

- 유럽의회는 총 20개의 위원회가 존재함
- 각 상임위마다 25명~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상임위마다 의장, 4명의 부의장, 사무국이 있음
- 매달 1~2회 브뤼셀에서 열림
- 상임위 종류
 - Foreign Affairs(AFET)
 - Development(DEVE)
 - International Trade(INTA)
 - Budgets(BUDG)
 - Budgetary Control(CONT)
 -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ECON)
 -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EMPL)
 -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ENVI)
 - Industry, Research and Energy(ITRE)
 -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
 - Transport and Tourism(TRAN)

- Regional Development(REGI)
- Agriculture(AGRI)
- Fisheries(PECH)
- Culture and Education(CULT)
- Legal Affairs(JURI)
- Civil Liberties(LIBE)
- Constitutional Affairs(AFCCO)
-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FEMM)
- Pétitions(PETI)

2. 유럽의회 분산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 과정

- 1951년, 6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정상이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하고 개국의 철강과 석탄 매장량의 관리를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출범함
-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의회를 설립함
 - 의회의 명칭은 공동회의(Common Assembly)임
 - 공동회의는 이후 유럽의회로 발전함
-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본부를 처음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두려고 함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 후보에서 배제됨
 - 네덜란드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배제됨
 - 룩셈부르크는 면적이 너무 작아 배제됨

- 그러나 벨기에 정부에서는 브뤼셀이 아닌 리에주(Liège)에 본부를 유치하려다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됨
- 이러한 갈등 속에 룩셈부르크를 임시 본부 소재지로 결정함. 그러나 룩셈부르크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공동회의를 개최할 공간이 부족했음
- 이에 따라,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공동회의의 개최장소로 스트라스부르를 제안함
 - 유럽 평의회는 인권,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됨
-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의 상징지역인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공동회의가 개최되었고, 스트라스부르는 점차적으로 유럽의회 본회의의 메인 장소가 됨
- 1957년 로마 조약(Treaties of Rome)을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이 설립됨
-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본부 역시 회원국 간 합의의 부재로 결정할 수 없었지만,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이 브뤼셀로 이전하였고, 유럽의회의 본회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회 회의와 이사회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유럽회의의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고, 위원회 회의와 정당 회의는 브뤼셀에서 열리게 되었음
- 1965년 유럽철강석탄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 머저 조약(Merger Treaty)이 브뤼셀에서 열림
- 룩셈부르크에서 머저 조약이 열리지 않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 유럽의회 사무국을 룩셈부르크에 설치하게 됨. 또한, 1967년부터 1981년까지 일부 본회의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하기도 함. 그러나 1981년, 전체 본회의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회귀함

- 1992년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기구들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결정됨
 -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됨
 - 상임위와 기타 의정활동은 브뤼셀에 하는 것으로 결정됨
 - 사무국은 기존대로 룩셈부르크에 두는 것으로 합의됨
 - 의원실은 모든 의원이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에 두는 것으로 합의됨

- 기능 분산에 대한 법적 근거
 -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 1997년 6월, 유럽연합(EU)의 15개국 정상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담을 열어 채택한 유럽의 통합에 대한 기본 협정
 - 유럽 위원회와 유럽형사경찰기구 소속 특정 기관 및 부서의 소재지에 관한 의정서(제8호)(Protocol on the location of the seats of the institutions and of certain bodies and depart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of Europol)
 -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Treaty of Rome) 제216조, 1951년 유럽 석탄 및 강철 공동체 설립 조약(Treaty of Paris) 제77조,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Euratom Treaty) 제189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 후 기능

- 본회의
 -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
 - 매월 1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개최됨
 - 유럽의회 의원(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의 투표를 위해 참석
 - 상임위에서 준비한 보고서와 제안서를 결정하는 자리임
 -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토의된 법안 등에 대한 보고서 심의, EU 내부 사항 및 국제 정세 등을 토의한 후 결의·권고 등을 채택

- 임시회
 - 임시회(extraordinary session)은 1년에 최소 6회 브뤼셀에서 개최됨
 - 임시회는 2일간 개최됨
- 위원회, 상임위, 청문회
 - 위원회, 상임위, 청문회는 브뤼셀에서 개최됨
 - 상임위는 적어도 한 달에 1회, 2일간 개최됨
 - 상임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개최됨
 - 상임위는 구체적인 정책 사항 등을 토의하는 등 유럽의회로서의 의사 결정을 위한 준비 역할 수행
 - 예산, 환경, 농업, 개발 협력,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성,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외교, 무역 등 2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음
 -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함
- 유럽의회 사무국
 - 룩셈부르크에 유럽의회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음

• 표 2-5 | 유럽의회 주요 회의 •

	본회의	임시회	상임위/청문회
장소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브뤼셀
개최 시기	매월 1회	1년에 최소 6회	매달 1회
개최 기간	월~목(4일)	2일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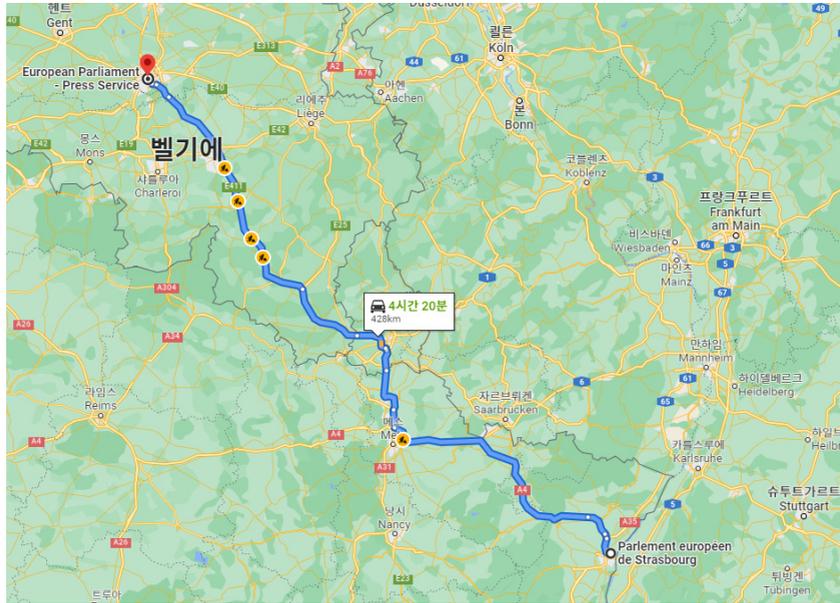
유럽의회 소재지 간 이동

- 유럽의회 소재지 간 이동 수단
 - 의회 소재지 간 이동을 위해 전세기, 비행기 특별편, 전세 열차 등이 운영됨
 - 매일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주로 서류, 우편물, 물품 등의 운반을 위해 사용됨(국토연구원, 2019)
 - 의원들의 이동을 위해 민간업체의 운전기사를 고용(국토연구원, 2019)
- 유럽의회 소재지 간 이동 거리 및 시간
 - 스트라스부르~브뤼셀 : 4시간 20분(자동차), 3시간(비행기), 5시간 17분(기차)
 - 스트라스부르~룩셈부르크 : 2시간 23분(자동차), 4시간 13분(기차)
 - 브뤼셀~룩셈부르크 : 2시간 19분(자동차), 3시간 20분(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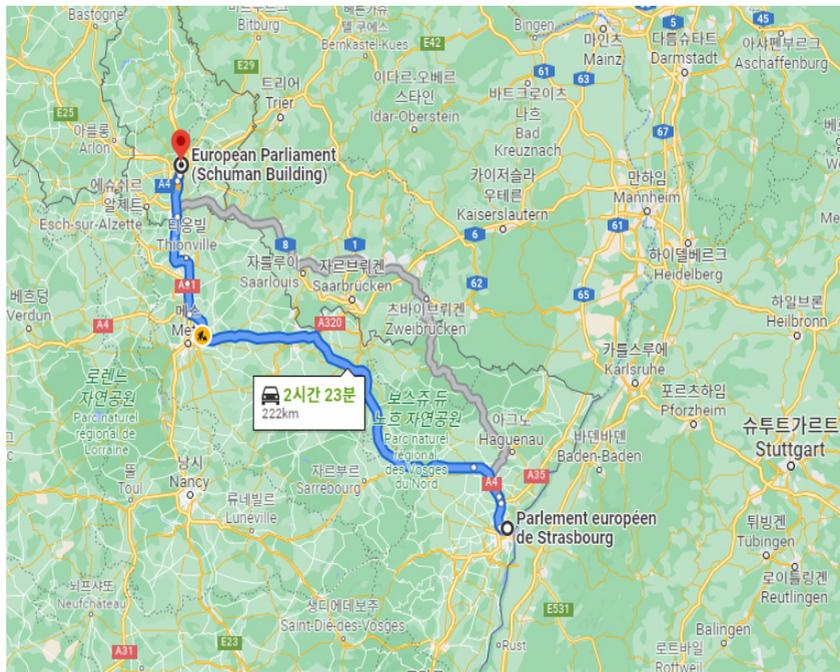
• 표 2-6 | 유럽의회 소재지 간 이동거리 •

	스트라스부르~브뤼셀	스트라스부르~룩셈부르크	브뤼셀~룩셈부르크
자동차	4시간 20분/428km	2시간 23분/222km	2시간 19분/211km
기차	5시간 17분	4시간 13분	3시간 20분
비행기	3시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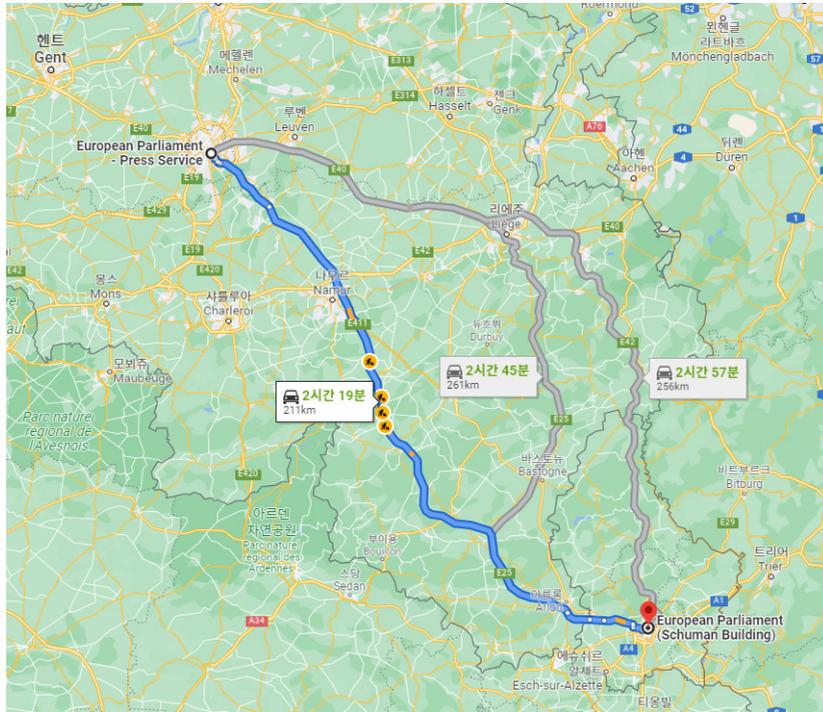
• 그림 2-1 | 스트라스부르~브뤼셀 이동시간 및 거리 •



• 그림 2-2 | 스트라스부르~룩셈부르크 이동시간 및 거리 •



• 그림 2-3 | 브뤼셀~룩셈부르크 이동시간 및 거리 •



유럽의회 의원 경비

- 경비
 - 유럽의회 의원들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용금액을 돌려받음
 - 비행기 : 비즈니스석
 - 기차 : 1등석
 - 자동차 : 0.53유로/km(1,000km까지 지급)
 -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 수하물 요금, 예약비 등도 청구할 수 있음
 - 의원들의 출신국 외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최대 4,517 유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유럽의회 의원들이 브뤼셀이나 스트라스부르에 공식적인 행사로 방문하는 경우, 1일당 324유로의 경비를 지급함
-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서 회의가 있는 경우, 1일당 경비는 162유로임
- 일반적인 지출액 지급 기준
 - 일반적인 지출액과 관련하여 매달 4,576유로를 지급함
 - 사무실 대여 및 관리 비용, 통신료(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의 및 전시회 관련 비용
- 월급
 - 2009년 7월,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판사 기본월급의 38.5%를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결정됨
 - 2020년 7월 1일부터 유럽의회 의원들은 매달 8,995.39유로를 받음
 - 세금 공제 후 7,011.74유로를 받음
 -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출신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출신국의 세율에 따라 월급은 달라짐

III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영향

1.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의 기능 및 장점

정치적 타협 및 상징적 효과

-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 자체는 유럽국가 간 정치적 타협의 과정 및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
- 유럽연합 기구들의 본부 유치는 회원국의 외교력과 정치적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임
- 유럽의 전쟁 및 역사로 인해 주요한 기구의 본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곳에 배치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본부와 유럽의회의 전신인 공동회의를 개최할 도시를 선정할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전후 힘의 균형 차원에서 배제함
- 전후 독일과 프랑스 화해의 상징지역으로서 스트라스부르가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장소로 선정됨.
- 유럽의회의 분산은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어 있어 브뤼셀로 유럽의회의 상당한 기능이 집중된 현재도, 유럽의회의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고, 상임위원회, 기타 회의, 정치활동은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음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으므로 의회의 분산은 분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것은 의회의 설립 시 의회와 관련이 깊은 언론사(방송사, 신문사), 정치단체, 시민단체, 연구소 등 조직 및 단체와 이곳의 종사자가 유입되기 때문임
- 룩셈부르크의 경우, 유럽의회 사무처 설치 이후 다문화적 요소가 강화되었고, 타 지역 민과 이주민을 환영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됨(Rittberger, 2003)
- 브뤼셀의 경우, 시내 동쪽에 유럽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EU 기구로 이루어진 EU 지구가 형성되어 있음
- EU 지구가 창출한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브뤼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뤼셀 자유대학교(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의회 및 EU 기구로 인해 GRDP가 약 5% 상승, 고용이 약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Vandermotten, 2007)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의회 업무시스템 발달

- 유럽의회는 분원으로 발생하는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민회답과(AskEP)는 이메일, SNS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의회와 EU문제에 대해 기관 또는 의장에게 전달된 일반 대중의 질의 및 정보 공개요청에 더욱 활발하게 응답하고 있음(이상현, 2018)
 - 이는 분원이 일반시민의 국회 접근성을 더욱 낮춘다는 지적에 대한 좋은 반례임

-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의 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며 대민 소통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불식될 수 있음
- 또한 분원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감소와 관련, 유럽의회 조사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하려 노력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브뤼셀에 위치해 있으며, 현 대한민국국회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처럼 일정 부분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유럽의회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cross-cutting ERPS-wide) 개발을 시도함 (이상현, 2018)
 - 유럽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유럽의회 조사처의 자료와 서비스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의원 핫라인 제공
 - 의원 핫라인은 유럽의회 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용 질의 양식을 작성하도록 운영되며, 이메일·유럽의회 내선번호·의회 외부에서 걸 수 있는 전용 번호·팩스를 통해 제공되며, 3시간 이내에 모든 질의에 초기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상현, 2018: 210-211)
 - 의원 핫라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조사처는 유럽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무질의 관리 시스템(EMS)을 강화함(이상현, 2018)
 - 유럽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유럽의회 조사처의 자료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팀 구성
 - 다양한 전자 플랫폼을 활용한 유럽의회 조사처에의 접근을 점진적으로 확장 및 심화함
 - 전 세계 모든 주요 의원연구 서비스 및 도서관 질의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거리 서비스 개선을 꾀하고 있음(이상현, 2018)

정치·문화적 유산을 다양한 유럽국가에 확산

- 유럽의회 분산을 통해 유럽의회의 정치·문화적 유산을 유럽 각 지역에 확산할 수 있으며, 본원 인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분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됨
- 유럽의회 조사처는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자료와 소장물을 각각의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음(Anthony, 2019)
 - 이를 통해, 본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본원과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유럽의회 조사처는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 각 지역 인근에서 모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행사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EU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도서관 및 조사처 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의견 교환 등이 이뤄짐(이상현, 2018)
 -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 아젠다 세팅과 토론을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가능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음

2. 유럽 의회 소재지 분산의 문제점

업무 효율성 저하

-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매달 1회, 4일간 개최됨
- 본회의를 위해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스트라스부르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임
 - 브뤼셀에 있는 5,039명의 직원들의 출장지의 49.9%는 스트라스부르, 33.4%는 룩셈부르크임(국토연구원, 2019)
 - 본회의가 있는 날, 브뤼셀 직원들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5시간 17분에 걸쳐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해 4일간의 회의 후 다시 브뤼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임

- 다수의 의회 직원들이 이동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함(European Parliament, 2021)

예산 낭비

-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 간 이동에 따른 막대한 경비가 소요됨
 - Lambert and Lucas(2007)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회 소재지 분산으로 인해 소요되는 이동경비가 1,800만 유로에 달함
- 유럽의회가 1년간 사용한 물류비용은 2억 2,566만 유로에 달함(국토연구원, 2019)
- 의원들에게 1회 출장당 300 유로가 지급되며, 항공료 및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9)
- 스트라스부르는 본회의 4일 외에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황임
 - 스트라스부르의 건물 총면적은 344,283m²으로 룩셈부르크(176,283m²)의 두 배에 달하지만, 직원수는 룩셈부르크의 14% 밖에 되지 않음
 - 건물 유지비용이 낭비된다고 지적받고 있음
- 유럽의회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 비용 발생하고 있음
 - 스트라스부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TGV 노선(파리-스트라스부르-독일) 신설(국토연구원, 2019)
 - 스트라스부르-룩셈부르크, 브뤼셀-룩셈부르크 간 정기 비행기 노선은 거의 없는 상황임. 스트라스부르-브뤼셀 간 정기 비행기 노선도 많지 않음
 - 이로 인해, 유럽의회 회기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특별 비행기 노선이 운영되며, 스트라스부르와 다른 유럽 대도시 간 특별 노선 운항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야 함(국토연구원, 2019)

유럽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불만

- 스트라스부르 및 브뤼셀에서 먼 곳에 위치한 국가의 의원들이 특히 의회 소재지 분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원들은 의회 소재지 분산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업무 효율성 저하에 따른 직무 만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의원 및 직원들은 유럽의회의 모든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함

행정 및 입법 효율성 측면

- 유럽연합의 본부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음
- 행정과 입법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 분산된 유럽의회의 기능도 브뤼셀로 통합되는 것이 행정 및 입법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창궐 시 개최 어려움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에 열려야 하는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스트라스부르 대신 브뤼셀에서 본회의가 개최되기도 함
- 의회 소재지 분산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창궐 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유럽의회의 회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IV

결론 및 시사점

1. 국회세종의사당 분원에 따른 장점 및 시사점

- 유럽의회는 기능 및 역할을 세 곳(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으로 분산하였음
- 유럽의회는 분산은 유럽의 역사, 정치, 힘의 균형의 산물이자 평화의 상징임
- 유럽의회 사례에서 나타난 분원의 기능 및 장점을 바탕으로 서울-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의 기능, 효과, 운영 방향을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함

분원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및 경제적 효과성 증진

- 유럽의회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지리적 거리가 멀어 생기는 비효율이 높음. 반면에 우리나라 국회의 세종 분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인접하게 함으로써 유럽 의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세종청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높여, 대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을 크게 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업무 추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상시적 업무 협의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용이해질 것임
-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하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출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왔음

- 또한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한 긴밀한 협조의 어려움 및 논의 시간 부족,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 정책의 질 저하, 의사결정 및 행정비용의 증가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음
-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간 협의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입법 비효율을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음

국회의사당 공간 확대를 통한 경제·문화적 효과 증진

- 유럽의회는 세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 지역으로 밀집된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실제로 스트라스부르의 비어있는 의사당 공간은 일부 임대를 주는 등 공간 활용의 여유가 있음
-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및 국회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공간 활용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시설, 유관 단체의 국회 내 공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여의도 국회 내 소통관 완공을 통해 국회의 부족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1.8배에 달하는 크기임. 이로 인해 유럽의회 사례와 같이 넓은 공간적 이점을 활용하고, 의원실 및 국회사무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넓은 부지를 이용해 국회 시설뿐만 아니라, 국회세종의사당 근처로 정치단체, 유관 기관, 언론사 입주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상징성 강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적 기능 및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세종의사당 분원 추진은 서울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건물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은 보존하되, 세종에서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안임
- 유럽의회는 분산이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 분원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 배분을 고려한 형평성,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지니며, 그 존재 자체로 상징성을 갖게 됨
- 서울에 소재한 몇몇 기관 및 부처(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와의 빠른 소통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상임위원회는 여의도 의사당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종의사당 분원 설립은 전체적인 입법 효율성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세종의사당 분원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본원과 비견될만한 아름다운 국회 건물 및 부속건물 건축이 필요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사당 건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국회의사당은 국가와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인근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평화적 이미지와 시민 참여적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유럽의회는 경우, 스트라스부르 지역의 유럽의회 의사당 건물은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지이자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세종의사당 분원은 유럽의회 분산의 단점을 보완한 방안

- 세종의사당 분원은 유럽의회처럼 세 지역으로 나뉜 구조가 아닌 이원 구조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안임
- 유럽의회 분원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세 지역을 오가야 하는 어려움과 비효율성에 대해 오랫동안 지적받아 옴(Clegg & van Hulten, 2003)
- 세종의사당 분원의 안은 국방, 외교통일 등의 상임위를 서울에 남기고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세종 분원 설치가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국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서울-세종의 분원 구조는 유럽의회식의 삼각 구조를 통한 비효율성은 줄이되, 형평성, 지방분권, 정치적 타협이라는 상징성을 높이고, 행정부와의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분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기대

- 룩셈부르크는 유럽의회 사무처 설치 이후 다문화적 요소가 강화되고, 타 지역민과 이주민을 환영하는 사회문화를 갖게 됨(Rittberger, 2003)
- 유럽의회와 국제기구의 설립 이후 브뤼셀의 GRDP가 약 5% 상승, 고용은 약 4.5% 증가함
- 현재 여의도가 정치의 중심으로 인식되듯이, 미래에 국회세종의사당 인근은 언론사, 정치단체, 유관 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문화의 장이자 살아있는 정치 교육의 산실이 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연구소, 대학교 본교 및 캠퍼스 이전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기능이 강화되며, 국회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 인프라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분원을 통한 정치적 갈등 완화

- 현 세종의사당 분원 안은 국방, 외교 등 핵심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기타 보좌조직의 이전과 의원회관의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원 간 민주적 토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임
-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내 의원의 활동은 정책 및 입법과 관련된 상임위 내부의 민주적 토론보다는 정당의 당파성이나 당 지도부의 지나친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합리적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정당 간의 대립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입법을 지체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음
- 따라서 당파에 따라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를 세종에 이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의 영향을 거리 두기를 통해 완화하고 정책 및 입법 그 자체에 집중하게끔 하는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
- 기존에는 상임위에서의 합의를 본회의에서 뒤집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음. 그러나 세종의사당 분원 이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여의도 본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높은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각 정당이 쉽게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는 상임위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고 있음. 시간적·거리적 문제로 인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본회의에서 바꾸는 경우가 적음

2. 분원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회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해소방안

- 분원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기능을 부자연스럽게 단절하는 것으로, 결국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유럽의회의 경우도 시설과 기구, 인력과 기능은 분명 분산 배치되어 있으나, 점차 업무와 인력이 자연스럽게 브뤼셀로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최악의 경우 세종의사당은 국회 직원들의 파견 장소로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분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원 계획의 구체적 추진 이전에 효율성이 크게 분산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업무 효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상임위와 본회의의 활동 지원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지원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분원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 해소방안

- 유럽의회 분산으로 인해 이동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매달 1회, 4일간 개최되는 본회의를 위해 의원 및 직원들이 스트라스부르로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교통비, 숙박비, 일비, 교통 인프라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은 스트라스부르의 접근성에 불만이 높은 상황임(Whitaker, Hix, & Zapryanova, 2016)
 - 룩셈부르크와 브뤼셀 사이의 이동이 용이한 데 반해,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 스트라스부르와 룩셈부르크 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불편함
 - 룩셈부르크는 주변국과의 교통 인프라가 좋으며(예, 스위스 취리히부터 시작해서 브뤼셀 까지 이어지는 인터시티 라인), 룩셈부르크로 매일 출퇴근하는 인근 국가의 국민들의 수송과 화물 운반이 활발함. 시내 교통 체증 역시 적은 편임

- 유럽의회 사례를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있어서도 교통 및 접근성 문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세종으로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분산의 단점만을 부각하고, 분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임
- 현재 서울에서 세종으로의 이동은 KTX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KTX 오송역에서 세종시 및 정부청사 인근으로의 접근성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높음
 - 유럽의회 역시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를 바로 연결하려는 기차 노선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었음
- BRT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기차나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은 분원 이후 더욱 늘어날 교통 수요 및 업무지구 접근에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움. 특히 국회 의원회관의 이전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교통편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세종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동성을 향상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부족한 교육·문화·주거 인프라 구축 필요

- 룩셈부르크와 브뤼셀의 경우, 유럽의회 분원이 위치한 도심의 주거비가 높아상당수의 직원들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한 거주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회세종의사당 이주 시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청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거나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홀로 세종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세종의 교육,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임

-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럽의회 사례를 검토하여 교육, 문화, 주거 인프라 구축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 교육, 문화, 주거 인프라 충족을 통해 국회의원·국회 직원·국회 관련 종사자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

참고문헌

문헌

- 외교부. 2021. 유럽연합. 서울: 외교부.
- 이상현. 2018. 유럽의회조사처의 최초 4년간의 업무(2014-2017). 입법평가연구, 14: 182-218.
- 이현출 조규범. 2014.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국회입법조사처.
- 조판기 외. 2019.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 한정훈. 2020. 유럽의회의 역사적 발전경험과 통일한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함의. 통일정책연구, 29(1): 1-32.
- Anthony, T. 2019. The work of EPRS-The first five years: 2014 to 2018. Retrieved from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STU\(2019\)637954](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STU(2019)637954)
- Clegg, N., & Van Hulst, M. 2003. *Reforming the European Parliament*. Foreign Policy Centre/British Council Brussels.
- Lambert, J., & Lucas, C. P. 2007. European Parliament two-seat operation: Environment costs, transport, and energy. Retrieved from <https://www.greens-efa.eu/legacy/fileadmin/dam/Documents/Studies/Climate/EP%20two-seat%20operation%20-%20Environmental%20costs%20Transport%20and%20Energy.pdf>
- Rittberger, B. 2003. The creation and empowerm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1(2): 203-225.
- Vandermotten, C. 2007. *Impact socio-économique de la présence des institutions de l'Union européenne et des autres institutions internationales en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ULB.
- Whitaker, R., Hix, S., & Zapryanova, G. 2017. Understanding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Four wav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group MEP survey. *European Union Politics*, 18(3): 491-506.

웹사이트

- 유럽의회 홈페이지. <<https://www.europarl.europa.eu/>>.
-